

#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남우진\* · 김철훈\*\*

##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납세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세무당국과 납세자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순응을 촉진하는 납세신뢰도를 분석하고 납세신뢰도가 매개효과를 통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세무대리인, 그리고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2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납세신뢰도와 납세순응 사이 매개변수를 납세의식 즉, 공정성, 성실성 그리고 윤리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공정성과 윤리성은 납세신뢰도와 납세순응 사이 부분매개하였으나 성실성은 기각되었다.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의식 즉, 공정성과 윤리성이 증가하고 순차적으로 납세순응도 높아진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납세의식을 매개변수로 도입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순응 수준 향상과 국민의 납세의식 수준 향상 관련 조세정책 수립에 있어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납세신뢰도, 납세의식, 납세순응, 미끄러운 경사이론, 계획행동이론

논문투고일 : 2023. 06. 25. 1차 수정일 : 2023. 06. 27. 게재확정일 : 2023. 06. 29.

\* 경영학 박사, 세무방송주식회사 대표이사, 제1저자 (nwj517@naver.com)

\*\* 세무사, 유안타증권 수석 세무전문위원, 교신저자 (taxkch@naver.com)

## I. 서론

세무행정은 전통적인 집행 도구를 통하여 적법하지 않은 소득 과소 신고를 예방하고 적발하는 권위 기반의 행정력을 행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납세자 대부분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무공무원과의 직접적인 대면은 어렵기 때문에 심리적 갈등 비용과 세무대리인의 고용과 같이 순응비용을 수반한다.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순응을 보장하기에는 비용 대비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Wenzel and Taylor 2003). 이는 불순응하는 납세자의 효용 가치보다는 처벌 및 적발될 확률 등으로 인한 불순응 비용이 더 크기 때문이다(Siglé et al. 2018). 일부 연구는 납세자의 순응욕구가 개인 납세자의 행동규범, 신념, 사회에 만연된 규범과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Belak and Hauptman 2011). 그러므로 납세자의 행동을 잘 이해하고 순응 동기를 조사하는 것이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납세순응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조세를 부담하는 이해관계자가 정부를 상대로 제언하는 법인세, 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등 제반 세법의 규제완화 방안(강무성·윤병섭 2022; 정혜윤·윤병섭 2022)을 정부가 검토하거나 수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는 당국과 납세하는 법인 또는 국민이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는 그 괴리가 크고 쉽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납세 불순응은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핵심이슈이다(황재민·이창대 2016). Allingham and Sandmo(1972)이 개발한 신고진적 모델은 납세 불순응에 대한 표준적 경제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모델은 ‘납세자들은 순응의 혜택과 비용, 불순응의 효용을 비교함으로써 과세소득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행위자’로 가정한다. 납세자는 불순응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예상되는 벌칙과 적발될 확률보다 크다고 인식될 때 불순응하게 된다.

납세불순응을 감소시키는 것은 강한 벌칙을 적용하거나 적발 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만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 많은 연구에서 Allingham and Sandmo(1972)의 모델에 대하여 ‘매우 단순한 이론이며, 탈세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금전적인 요소들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비판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납세불순응의 이유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 경제모델은 단순하고 명확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찰된 납세순응 수준이 이론적으로 예측된 수준보다 높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Leonardo 2011).

선행연구에서는 납세불순응의 억제, 개인 및 사회적 규범, 조세제도의 복잡성, 더 넓은 경제 환경,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와 공정함의 다섯 가지 광범위한 요인으로 설명한다(Hauptman et al. 2014). 민간 납세자, 자영업자, 소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납세순

응의 차별성을 나타내고 있는 바 사회적, 심리적 요인들이 경제적 요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Hartner et al. 2008). 그동안 규제당국은 경제적 제재에 기반을 두는 강압 기반의 규제 전략을 활용해 왔으나 오늘날 강압 기반의 규제 전략은 설득과 도덕적 호소를 사용하는 규범적, 신뢰 기반 전략으로 대체되고 있다(Ariel 2012). 또한, 협력적 풍토에서의 과세당국은 납세자를 전문적 서비스와 공정한 절차에 의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고객으로 인식(Gangl et al. 2012)하고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 증가는 자발적 순응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Kirchler et al. 2008). 이러한 협력적 풍토에서 납세자는 세무당국의 법을 준수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한다는 지각이 있어 세법을 도덕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기꺼이 세무당국에 협력하고 세법에 복종하려 한다(Tyler 2006; 노정관·박성욱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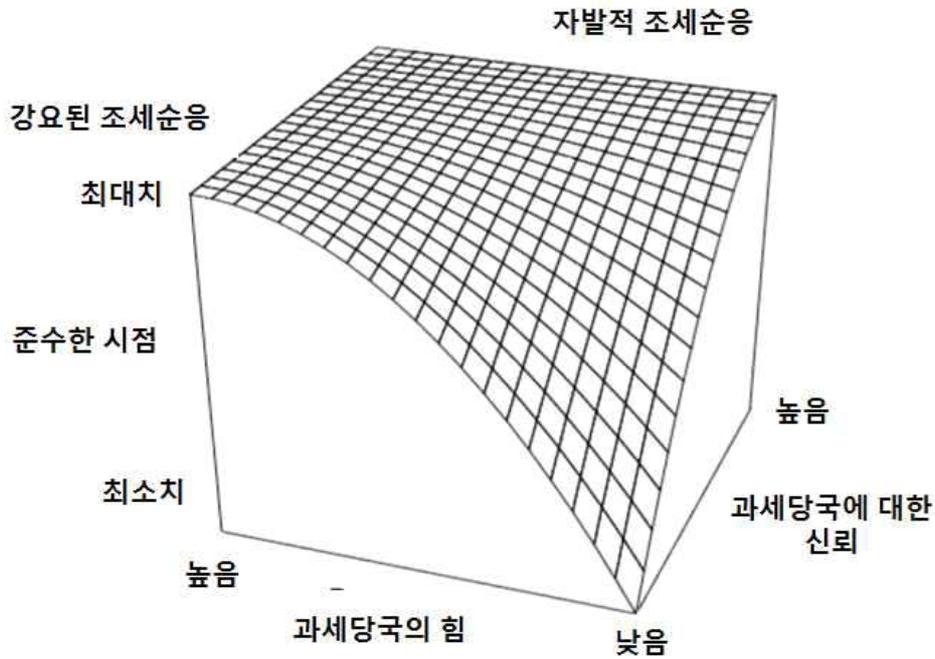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납세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다. 첫째,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끄러운 경사이론(Slipper Slope Framework: SSF)을 채택한다. 둘째, 납세신뢰도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즉 납세신뢰도와 납세순응 사이 매개하는 납세의식을 태도 관점에서 그 효과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ur: TPB)을 적용해 납세의식의 하위차원인 공평성, 윤리성, 성실성의 매개효과를 측정한다. 본 연구는 세금을 부과하는 당국과 납세자 사이 납세순응을 촉진하는 변수를 미끄러운 경사이론(Slipper Slope Framework: SSF), 계획된 행동이론(TPB) 등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어 기존 연구가 다른 일반적 형태의 납세순응 연구에 비해 연구방법 상 차별성과 그 결과 및 해석에서 실무적 지원 가능성을 높인 기여도가 있다.

## II. 미끄러운 경사이론과 계획행동이론

### 1. 미끄러운 경사이론

Kirchler et al.(2008)의 미끄러운 경사이론(slippery slope framework: SSF)은 납세자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통합하여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설명하는 개념적 모형이다. 내재적 동기인 과세당국의 신뢰와 외재적 요인인 과세당국의 힘 사이 즉 납세자의 자발성 유도와 탈세를 억제하기 위한 힘 사이 상관관계를 다룬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요인 양자(兩者)가 가져오는 상호작용에서 조세순응의도(compliance intention)의 수준을 설명한다(Kirchler et al. 2008; 강민조 2017). 다시 말하면 과세당국의 신뢰와 과세당국의 힘 양자(兩者)가 어느 정도 균형점을 지니는지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정도가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납세자의 내재적 동기인 과세당국의 신뢰가 클수록 즉 세금의 공정한 활용, 세무정보 공개, 투명성 등을 통해 나타나는 자발적 순응(voluntary compliance)이 커진다. 한편, 납세자

의 외재적 요인인 과세당국의 힘에 의한 강제력 행사가 클수록 즉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및 처벌 등을 통해 나타나는 강요된 순응(enforced compliance)이 커진다. 납세자의 내재적 동기인 과세당국의 신뢰와 납세자의 외재적 요인인 과세당국의 힘에 의한 강제력 행사 양자(兩者)의 상호작용을 Kirchler et al.(2008)은 [그림 1]과 같이 3차원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II-2]는 납세자의 내재적 동기인 과세당국의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 순응(voluntary compliance)과 납세자의 외재적 요인인 과세당국의 힘에 기반한 강요된 순응(enforced compliance)을 보여주면서 완전한 조세순응을 목표로 하는 미끄러진 경사이론을 주장하고 있다. Kirchler et al.(2008)의 주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지만, 완전한 순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정도효 2019). 그 이유는 대체로 조세순응은 납세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개인의 태도는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과세당국의 신뢰나 힘의 한 부분이 최대 수준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강민조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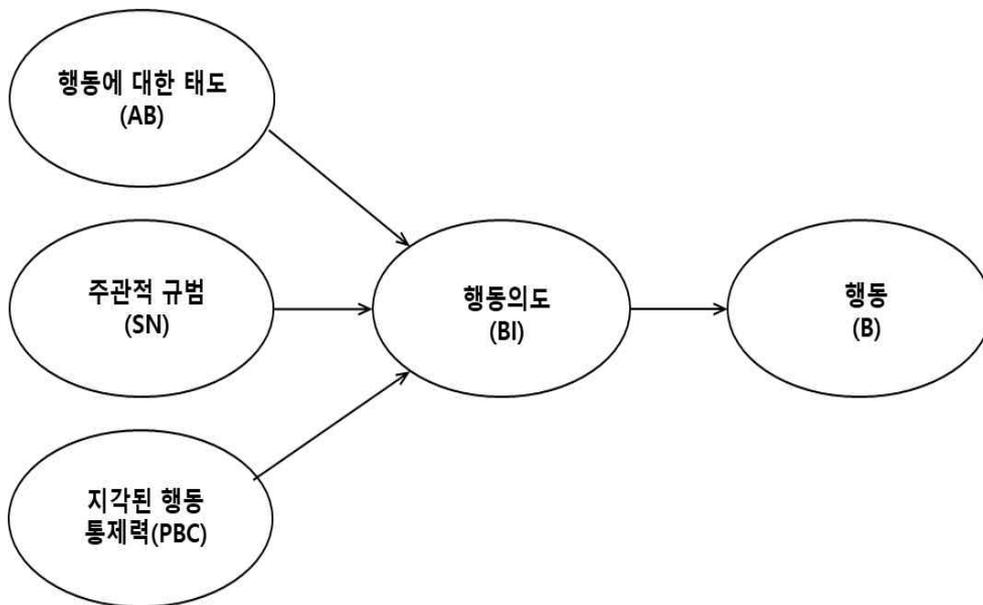
자료: Kirchler et al.(2008).

[그림 1] 미끄러운 경사 이론모형

## 2. 계획행동이론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Ajzen and Fishbein(1980)의 합리적행동 이론을 기반으로 보완 발전된 이론이다. 그러나 합리적 행동이론은 개인의 의지에 따른 통제가 불

가능한 경우 행동을 예측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개인은 인적·물적, 기술, 시간 등의 자원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많거나 장애요인이 적다고 판단할수록 자신의 행동에 대한 조절력을 크게 느낀다(Ajzen 1991). 이와 같은 상황을 행동에 대한 지각된 용이성, 지각된 행동조절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점을 보강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이 제시되었다. Ajzen(1991)은 [그림 2]와 같이 행동이 개인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행동을 예측할 목적으로 지각된 행동통제 요인을 추가한 계획행동(TPB) 모형을 제시하였다. 계획행동이론은 행동은 행동 의도와 지각된 행동 통제에 직접 영향을 받고, 행동 의도는 주관적 규범, 행동에 대한 태도 및 인지된 행동 통제의 세 가지 사회, 심리학적 결정요인에 따른다고 가정한다(허진영·최현혁, 2008). 또한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은 합리적 행동이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그 핵심요소인 지각된 행동 통제력은 Bandura(1977)의 사회인지 이론에서의 자기효능감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Ajzen(1991).

[그림 2] 계획행동이론(TPB) 모형

### Ⅲ. 선행연구

#### 1.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Song and Yarbrough(1978)은 미국 국세청이 납세자들로부터 징수능력을 신뢰받을수록 조세회피 성향이 줄어들므로 납세순응과 정부 신뢰도 사이 양(+)의 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Vogel(1974)은 납세자가 지니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조세회피 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정부 신뢰도가 조세순응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Parent et al.(2005)은 전자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이용 경험이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 결과 이용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전자정부 서비스 질을 높게 평가할수록 정부를 더욱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황광석·이운식 2019). 이영환(2009)는 세무 서비스품질이 수요자의 만족과 납세순응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무당국의 유형성, 신뢰성이 세무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위협회피 성향과 납세신고액이 클수록 수요자는 강하게 반응하며, 세무담당자의 반응성, 공감성, 확신성은 수요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납세신고액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으며, 수요자 만족은 납세순응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Smith(1990)는 성실납세자들에 대해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성실납부를 유도하는 유인 위주의 세무정책이 납세순응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Kirchler et al.(2008)은 세율인상과 납세순응 사이 음(-)의 관계가, 과소 신고회와 수익획득노력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을 밝혔다. 그들의 연구 결과는 과소신고(납세 불순응)는 납세순응을 결재행위를 추구하는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촉진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추가적인 노동공급 반응으로부터도 촉진된다고 주장하였다(박주철 2008). 현진권(2005)은 실험 자료를 통해 세무조사와 가산세가 납세순응에 매우 유효한 정책수단임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비경제적인 요인으로 조세에 대한 교육이 납세순응 수준을 높이는데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정호·노현섭(2012)는 사회 전반적으로 탈세가 높아진다는 의식이 높을수록 납세자들의 납세순응도가 감소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희상(2009)은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신고수준의 차이점을 확인하지 못하여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구광희(2010)는 세무조사와 납세의식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세무조사의 공정성 확보 및 조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할수록 납세자의 납세순응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 2. 납세신뢰도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임영규·김진찬(2014)은 2011년 7월 영남권 지역 세무대리인,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자 등 3개 집단군을 대상으로 배부한 설문지 373부를 가지고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의식과 납세순응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납세자 신뢰도와 납세의식 사이 관계에서 세무 서비스의 경우 성실납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납세 인프라의 경우 조세 공정성과 납세윤리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세무 투명성의 경우 조세 공정성과 성실납세 각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Porcano(1984)는 미국의 소득세 구조 및 재분배에 관한 공정성, 공평성에 대한 납세자 의식을 실증 연구한 결과, 공평성의 관점에서

납세자 요구와 조세부담 능력이 조세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였다. Weigel et al.(1987)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탈세 만연도와 탈세에 대한 허용도는 조세회피에 양(+)의 영향을 주지만 처벌에 대한 확실성과 강도, 탈세에 대한 사회적 비난 등은 조세회피에 음(-)의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Kaplan and Reckers(1985)는 납세자들의 조세회피 성향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벌금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만연, 재무적 요구, 소득수준, 윤리, 조세회피율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박병목(2000)은 납세도의 의식수준이 조세부담의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납세도에 대한 의식수준이 세 부담의 공평성 인식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납세도에 대한 의식수준이 높은 집단이 조세부담의공평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목·박명호(2007)는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의 연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조세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재을(2010)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납세자의 윤리 환경과 납세윤리 의식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민기홍 외(2011)은 납세자들이 조세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와 탈세법에 대한 법적 처벌 등에 대한 납세의식이 높을수록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에 양(+)의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정부는 세무행정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법의 일반적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3. 납세신뢰도와 납세순응: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Mickiewicz et al.(2019)은 정부 및 세무당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도와 납세의식 간에 양(+)의 유의한 관계를 발견하였다. Veeramootoo et al.(2018)은 정보의 품질은 이용자 만족도를 제외한 시스템 및 서비스 품질만이 이용자 만족도에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국민의 납세의식은 ‘납세자들이 세금 징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강박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세금 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낸 세금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형태를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납세의식은 사회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 장애물이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Kamil 2015). 세무당국이 조사 및 벌금부과와 같은 강압 혹은 제재 전략을 시행함으로써 사람들이 탈세를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할 수는 있지만, 헌신적인 납세자들의 사례를 파악하고 널리 알림으로써 사람들의 납세의식의 진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심리적 세금계약은 세무당국이 정부와 납세자 사이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주도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Hasseldine and Bebbington 1991). 순응 격차, 즉 징수된 세금과 납부해야 할 이론적 세금 사이의 차이는 소득 신고의 꺼림, 세금을 체납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려는 시도, 부정행위 혹은 과소 신고할 수 있는 능력, 납세의무에 대한 지식 부족, 세법 이해의 어려움, 세금 신고의 높은 비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Jensen and Wöhlbier 2012). 일반적으로 세무 행정의 목표는 세법의 준수를 보장하고 납세자의 고객 서비스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다. 납세자의 납세에 대한 동기와 그들의 태도를 더 잘 이해하면 자발적인 순응과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선행연구는 납세

순응의 억제, 개인 및 사회적 규범, 조세제도의 복잡성, 더 넓은 경제 환경,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와 공정함의 다섯 가지 광범위한 요인으로 설명한다(Hauptman et al. 2011). OECD(2010)는 납세에 있어서의 공정함을 정부가 세입의 현명한 소비자로서 행동한다는 분배적 공정성, 세무 행정은 납세자를 대할 때 공평한 절차를 준수한다는 절차적 공정성, 세무행정이 규칙 위반시 처벌의 적용에 있어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보복적 공정성 등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한다. 절차적 및 환원적 공정성은 세무 행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분배적 공정성은 정책 입안자의 영향을 받는다. 세무조사 활동은 납세자들이 신고한 수입에서 납세자들의 세금의 무를 적절하게 보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세무행정 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된다. 조사활동에 참여하는 직원과 이들이 징세와 순응률에 대한 기여는 세무행정에 있어 관심의 대상이다. 세무행정 서비스로 측면에서의 세무조사는 납세순응의 요인으로서의 공정함과 신뢰로 분류될 수 있다. 보다 현명한 납세순응을 위해서 징수기관인 세무당국은 세금을 징수하기 이전에 상당한 양의 자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는 납세순응을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적인 접근법을 토대로 세무당국이 보다 현명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무당국이 납세자의 전반적인 순응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국제청이 납세자 순응을 개선하고 세금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Russell 2010). 납세자 순응 프로그램의 목적은 비순응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것이다. 세무행정에 있어 납세자 순응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납세 인구 전체의 자발적 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순응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세무 당국은 수입 분석 능력을 개선하고 서로 다른 세금 범주에서 납세순응을 위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 IV. 연구설계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납세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모형을 [그림 3]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납세신뢰도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납세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다.



[그림 3] 연구모형

## 2. 연구가설

### 1)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가설

본 연구는 납세신뢰도와 납세순응 사이 주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미끄러운 경사이론 (Slippery Slope Framework: SSF)을 채택했다. SSF는 자발적 순응은 주로 지각된 신뢰에 의존하는 반면, 강요된 순응은 지각된 권력에 좌우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정부의 긍정적인 행동은 납세자들의 사회적 헌신과 납세동기를 높이고 납세자들의 수직적 신뢰는 납세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Horodnic 2018). 또한 4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Richardson(2006), 미국 Song and Yarbrough(1978), 그리고 스웨덴 Vogel(1974) 등을 포함한 많은 연구는 정부와 납세자 순응 사이 양(+)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세무당국의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납세자의 신뢰를 증가시킴으로써 납세순응도 높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납세신뢰도는 납세순응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납세신뢰도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가설

Song and Yarbrough(1978)는 조세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생각을 가진 납세자들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납세자들보다 조세회피 성향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최영근(1996)은 납세성실도 관련 연구에서 세금을 납부하거나 회피하는 이유 및 조세회피 금액의 국가 전체적인 규모 등을 살펴본 결과, 납세의무자의 성실도 즉 세법 준수성과 관련한 요인들에 대한 축적된 지식의 필요성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병목(2000)은 납세자의 의식수준이 세 부담의 공평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납세신뢰도가 납세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 2를 설정하였다.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납세신뢰도는 세무서비스, 투명성, 청렴성 요인으로 측정하고, 납세의식은 공평성, 윤리성, 성실성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세금을 내는 국민의 납세신뢰도가 높아지면 납세의식도 높아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납세신뢰도는 납세의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가설: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Feld and Frey(2007)는 납세자와 정부 간의 암묵적 계약을 심리적 세금계약으로 정의했다. 높은 GDP의 수준, 높은 정부 지출의 수준, 높은 이민의 수준은 납세동기와 양(+)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소득 불평등, 세율은 시민들의 납세동기와 음(-)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공식 기관들이 어떻게 납세동기를 형성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더 높은 수준의 현대화 즉, 더 높은 GDP, 더 효과적인 사회 보호 조치, 낮은 수준의 불평등과 부패, 더 높은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공공 지출의 공정성과 효과성, 세금의 사용에 대한 결정 참여 등이 수반될 경우 시민들이 납세의식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Horodnic 2018). Torgler and Schneider(2009)는 기관 품질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이 납세순응에 중대한 역할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임영규·김진찬(2014)의 연구는 납세인프라 및 세무투명성은 공정성에, 납세인프라는 납세윤리에, 그리고 세무투명성 및 세무서비스가 성실성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Mickiewicz et al.(2019)는 정부 및 세무당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납세의식 양(+)의 유의한 영향을 발견하였다. Cyan et al.(2016)은 정부의 조세체계에 대한 신뢰가 세금사용 및 혜택에 대한 공정성 지각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는 납세자 신뢰와 납세의식 간의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Asrinanda(2018)는 납세의식을 ‘납세자의 세금 의식에 대한 이해와 납세자의 납세 및 신고의 엄격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납세자의 성실성과 욕구’로 정의하면서 실증연구에서 납세의식은 납세순응에 부분적으로 양(+)의 유의한 영향을 보여주었다. 조세시스템이 공정하다고 경험하게 되면 신뢰는 증가하고 순차적으로 자발적 순응은 증가하게 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3 납세신뢰도는 납세의식을 매개로 납세순응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 연구설계

### 1) 표본설계

본 연구는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해 측정 문항을 구성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 수집 대상은 <표 1>과 같이 납세자 500명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는 2020년 4월 15일부터 2020년 5월 15일까지 1개월에 걸쳐 40개 표본을 수집 분석하였으며, 예비 조사 결과에 따라 납세신뢰도, 납세순응, 납세의식, 징수행정만족도의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문항을 최종 확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본 조사는 전국을 직장소재지 기준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제주권)으로 설정한 후 전국 단위의 납세자 회원을 대상으로 2020년 6월 15일부터 7

월 15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e-mail, 모바일 설문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 2인과 함께 연구대상자의 직장,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400부의 설문을 회수하였으며, 분석 가능한 설문지 278부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표 1> 설문지의 배포 및 회수 현황

구분	예비 조사	본 조사
기간	2020.4.15.~5.15.	2020.6.15.~7.15.
대상	납세자	납세자
배포	50부	500부
회수	46부	400부
활용	40부	278부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개인수준의 횡단연구로써 자기보고식(self-rating) 방식을 통해 연구모형 상의 모든 변수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측정 항목은 “1: 전혀 아니다, 2: 아니다, 3: 보통,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Likert, 1932)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 (1) 납세신뢰도

본 연구는 납세신뢰도 하위변수인 세무서비스, 투명성, 청렴성의 측정을 Qutaishat(2012), Veeramootoo et al.(2018), 구광희(2010), 임영규와 김진찬(2014) 등의 연구를 참고하고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해 세무서비스 5문항, 투명성 4문항, 청렴성 5문항 등 14문항을 사용하였다.

### (2) 납세의식

본 연구에서 납세의식, 즉 공평성, 윤리성, 성실성의 측정은 Sapiei et al.(2014), Kamil(2015), Jimenez and Iyer(2016), 구광희(2010)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공평성 5문항, 성실성 4문항, 윤리성 4문항을 사용하였다.

### (3) 납세순응

본 연구에서 납세순응의 측정은 Gangl et al.(2014), Kamil(2015), Faizal et al.(2017), 김관형·심태섭(2019)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하여 단일요인 5문항을 사용하였다.

## 3) 설문 문항 구성

설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의 목적에 타당한 설문 문항을 구성하고자 세무행정 25년 이상 근무자 1인, 세무 대리 15년 이상 실무 경력자 1인 등 2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납세의식과 징수행정만족도를 매개변수로 도입하여 고안한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설문지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변수			선행연구
독립 변수	납세 신뢰도	세무서비스	Qutaishat(2012), Veeramootoo et al.(2018), 구광희(2010), 임영규와 김진찬(2014)
		투명성	
		청렴성	
매개 변수	납세의식	공평성	Sapiei et al.(2014), Kamil(2015), Jimenez and Iyer(2016), 구광희(2010)
		윤리성	
		성실성	
종속 변수	납세준응	납세준응 (단일요인)	Gangl et al.(2014), Kamil(2015), Faizal et al.(2017), 김관형·심태섭(2019)
일반 문항		성별	구광희(2010)
		연령	
		학력	
		직장소재지	
		직업	
		중사업종	
		매출액	
		사업 년수, 근속연수	
		최근 5년 내 세금체납 경험	
		납세환경에 맞는 능동적 대처방안	

####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SPSS2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성 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함으로써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매개효과 측정은 Baron and Kenny(1986)의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하였다.

## V. 실증분석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가 회수한 설문지는 전국을 직장소재지 기준 5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제주권)으로 설정한 후 전국 단위의 납세자 회원으로부터 수집하였다. 회수한 설문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N	%	특성	구분	N	%		
성별	남자	188	67.6	종사 업종	제조업	25	9.0		
	여자	90	32.4		건설업	15	5.4		
연령	30세 이하	5	1.8		도·소매업	17	6.1		
	31세~40세	60	21.6		서비스업	107	38.5		
	41세~50세	93	33.5		음식·숙박업	3	1.1		
	51세~60세	92	33.1		기타	111	39.9		
	61세 이상	28	10.1		1억 원 미만	55	19.8		
직장 소재지	수도권	235	84.5		수입	사업자 (연간 매출액)	1억 원~10억 원	44	15.8
	충청권	8	2.9			10억 원~50억 원	15	5.4	
	호남권	16	5.8			50억 원~100억 원	8	2.9	
	영남권	4	1.4	100억 원 초과		5	1.8		
	강원권·제주권	15	5.4	근로자 (연봉)		1천만 원 미만	6	2.2	
업력	1년 미만	20	7.2	1천만 원~3천만 원	25	9.0			
	1년~5년	76	27.3	3천만 원~5천만 원	34	12.2			
	6년~10년	55	19.8	5천만 원~1억 원	63	22.7			
	11년~20년	68	24.5	1억 원 초과	23	8.3			
	21년 이상	59	21.2	학력	고졸	19	6.8		
체납 경험	있다	45	16.2		전문대졸	24	8.6		
	없다.	233	83.8		대졸	128	46.0		
계		278	100.0		대학원졸	107	38.5		

## 2. 신뢰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문항 선별 기준으로 문항과 하위척도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주는 문항-전체 상관계수(item-total correlation)와 문항삭제 시 척도 신뢰도 계수(item-delete Cronbach's  $\alpha$ )를 사용하였다. 문항-전체 상관계수가 부적 또는 0.40이하의 상관을 나타내거나 척도의 내적 일관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문항은 수정 문항으로 간주한다. <표 4>와 같이 납세신뢰도의 신뢰성을 분석한 결과 문항-척도의 상관계수가 모두 양(+)의 관계를 보였다. 각 문항의 반응점수와 전체 척도 간의 상관관계가 대부분 적정 판정기준인 .40 이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alpha$  계수들이 .813~.889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가 실시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상관계수 행렬을 분해하는 방법으로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회전 방법은 요인행렬을 최대한 단순화시켜 요인의 구분을 분명히 해주는 장점이 있는 직각회전(varimax)을 적용하였다.

### 1) 납세신뢰도

납세신뢰도 측정 15문항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와 같이 단순상관계수, 부분상관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전체 자료의 표본 적절성을 검증하는 KMO(Kaniser-Meyer-Olkin) 측정치는 .943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치( $\chi^2=3280.26$ ,  $df=91$ ,  $p<.001$ )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4> 납세신뢰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세무서비스)	요인2 (투명성)	요인3 (청렴성)	공유치 (공동성)	신뢰성 분석	
					문항- 전체 상관 계수	문항 삭제 시 척도- 신뢰도 계수
국세청 전자세정 만족 정도	.914	.250	-.009	.898	.768	.872
국세청 홈택스 만족 정도	.897	.214	-.017	.851	.874	.889
업무수행 전문성을 지닌 국세공무원	.882	-.265	.031	.849	.846	.870
세무행정 절차와 경로의 편리성	.880	.024	-.018	.775	.821	.862
민원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815	.215	-.127	.727	.791	.813
국세청 세무조사 신뢰성	.192	.871	.174	.826	.758	.873
국세공무원의 법령에 따른 업무 처리	.255	.849	-.129	.802	.859	.880
국세청 제공 세무서비스의 우수성	.244	.804	-.187	.741	.828	.861
국세공무원이 납세자 입장에서 업무처리	-.069	.791	-.301	.721	.759	.883
국세공무원의 높은 청렴도와 신뢰성	.184	.231	.817	.755	.774	.882
국세청이 부패방지를 위해 노력	.119	.152	.782	.649	.748	.853
국세공무원의 업무처리 결과를 신뢰	-.096	.235	.741	.614	.458	.872
국세청은 세무행정의 일관성을 유지	-.192	.194	.721	.594	.658	.886
세무조사 선정방식 등 조세정보를 신뢰	.265	.118	.709	.587	.720	.864
고유치(eigen value)	4.187	3.160	3.041			
분산비율(%)	29.908	22.572	21.721			
누적분산비율(%)	29.908	52.480	74.201			

공동성은 .587~.898까지 분포하였고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 요인 부하량 .40 이상의 3개의 요인을 14문항에서 도출하였다.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납세신뢰도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세무서비스 5문항, 투명성 4문항, 청렴성 5문항 등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세무서비스 29.908%, 투명성 22.572%, 청렴성 21.721% 등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설명력은 74.201%이다. 각 문항이 해당 척도를 수렴하는 방향성과 강도성을 나타내고 있다.

## 2) 납세의식

납세의식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KMO 측정치는 .859이다. KMO 값이 .5 이상이므로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chi^2=2887.6$ ,  $df=87$ ,  $p<.001$ )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 추출 기준인 요인 부하량 .04 이하는 없었고 Scree 검사에서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적절한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추출된 요인은 <표 5>와 같이 나타났다.

납세의식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공평성 5문항, 윤리성 4문항, 성실성 4문항이 추출되었다. 공평성 23.960%, 윤리성 22.380%, 성실성 21.365% 등의 설명력을 보이며, 전체 설명력은 67.705%이다.

<표 5> 납세의식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공평성)	요인 2 (윤리성)	요인 3 (성실성)	공유치 (공통성)	신뢰성 분석	
					문항-전 체 상관 계수	문항 삭제시 척도-신 뢰도 계수
소득수준을 고려한 조세제도	.847	.250	.054	.783	.524	.829
세율체계의 적정성	.800	.211	.032	.686	.647	.816
세 부담에 상응한 정부의 혜택	.737	-.016	.149	.566	.562	.825
수직적·수평적 세 부담 공평성	.720	.023	.301	.610	.544	.793
소득에 비례한 세 부담 적정성	.693	.219	-.143	.549	.543	.830
탈세자의 사회적 지탄	.221	.887	.092	.844	.527	.828
탈세자에 대한 처벌강화	.172	.752	.135	.613	.696	.809
조세포탈자 과세당국에 고발	.124	.844	-.054	.731	.645	.808
과중한 세 부담과 성실신고	.093	.726	.276	.612	.415	.79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전략	.273	-.223	.864	.871	.643	.780
세금의 올바른 사용과 성실납세	-.129	-.108	.801	.670	.557	.858
납세홍보로 세금의 인식 변화	-.076	.187	.787	.660	.592	.873
탈세시 죄의식 인식	-.127	.256	.726	.609	.597	.874
고유치(eigen value)	3.115	2.909	2.778			
분산비율(%)	23.960	22.380	21.365			
누적분산비율(%)	23.960	46.340	67.705			

### 3) 납세순응

납세순응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KMO 측정치는 .943이다. KMO 값이 .5 이상이므로 요인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치( $\chi^2=3280.26$ ,  $df=91$ ,  $p<.001$ )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탐색적 요인 추출 기준인 요인 부하량 .40 이하는 없었고 Scree 검사에서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적절한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최종 추출된

요인은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공통성은 .602~.797까지 분포하였고 고유치(eigen value) 1 이상, 요인 부하량 .40 이상의 단일요인을 5문항에서 도출하였다. 설명력은 66.040%이다.

<표 6> 납세순응 척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납세순응)	공유치 (공통성)	신뢰성 분석	
			문항-전체 상관 계수	문항 삭제 시 척도-신뢰도 계수
각종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	.893	.797	.661	.871
체납처분 이후 세금을 더 성실히 납부	.812	.659	.806	.889
높은 가산세율이 납부 성실성을 유도	.785	.616	.865	.848
납세자권익이 보장된다면 성실하게 신고	.776	.602	.813	.816
재기사업자의 정책지원 시 성실하게 납부	.792	.627	.803	.852
고유치(eigen value)	3.302			
분산비율(%)	66.040			
누적분산비율(%)	66.040			

### 3. 상관분석

본 연구는 종속변수에 대한 정규분포 검증을 위해 히스토그램, 회귀모형의 예측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극단치(산포도), 사례별 극단치의 진단(Casewise diagnostics, 표준편차 $\geq\pm 3.0$ ), R에서 비선형(Mahalanobis Distance) 판별분석 등을 확인한 결과 심각한 극단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잔차 검증은 정상확률곡선(normal P-P plot), 잔차의 산포도, Durbin-Waston을 이용하였다. 먼저, 잔차의 산포도는 분포된 점들이 표준점수 0을 중심으로 음(-)에서 양(+1) 사이에 집중분포되어 정상각형을 이루고 있었고 정상확률 곡선은 잔차들의 분포가 원점을 통과하며 45° 기울기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한 관찰에서 나타난 오차가 다른 관찰에서 나타난 오차와 상관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는 오차 독립성을 나타내주는 Durbin-Waston의 값은 2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있어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변수 사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독립변수 사이 상관분석과 공차(tolerance),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로 확인되었다. 공차는 변수의 표준오차의 크기를 의미하는데 1 이하로 나타났고, VIF는 1.01~1.15로 나타나 기준값인 1에서 2사이의 값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일련의 통계적 절차를 거친 측정도구를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표 7>과 같이 나타내었다. 세무서비스는 청렴성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638$ ). 투명성은 윤리성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r=.728$ ). 청렴성과 성실성은 .636수준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1$ ). 공평성은 성실성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r=.725$ ). 윤리성은 납세순응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789$ ). 성실성은 독립성에서 가장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r=.543$ ). 납세순응은 윤리성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789$ ). <표 7>은 모든 요인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p<.010 \sim p<.001$ ).

<표 7> 상관분석

요인	1	2	3	4	5	6	7	VIF
1	1	.514***	.638***	.320***	.404***	.498***	.165**	1.04
2		1	.611***	.459***	.728***	.577***	.118*	1.02
3			1	.429***	.558***	.636***	.123*	1.03
4				1	.663***	.725***	.167**	1.08
5					1	.149**	.789***	1.03
6						1	.099	1.01
7							1	

주) 1: 세무서비스, 2: 투명성, 3: 청렴성, 4:공평성, 5: 윤리성, 6: 성실성, 7: 납세순응  
 \*:  $p<.050$ , \*\*:  $p<.010$ , \*\*\*:  $p<.001$

#### 4. 연구가설 검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에서 매개변수의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Baron and Kenny(1986)가 제시한 단계에 따른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어야 하고,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했을 때 2단계에서 유의한 관계였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약해지거나(부분매개) 유의하지 않아야 한다(완전매개).

##### 1)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립변수 납세신뢰도의 하위요인은 세무서비스, 투명성, 청렴성 등 3요인이며, 종속변수 납세순응은 단일요인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가설	독립변수	종속변수	비표준계수		표준계수	R <sup>2</sup>	t	가설검증
			B	표준오차	β			
1-1	세무서비스	납세순응	.478	.049	.482	.206	9.62***	채택
1-2	투명성		.520	.052	.507	.271	10.17***	채택
1-3	청렴성		.728	.59	.489	.249	10.75***	채택

\*\*\*: p<.001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투명성(β=.507), 청렴성(β=.489), 세무서비스(β=.482) 순이다. 따라서 가설 1 “납세신뢰도는 납세순응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채택된다.

2) 납세신뢰도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본 연구는 납세신뢰도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납세신뢰도의 하위요인은 세무서비스, 투명성, 청렴성 등 3요인이며, 납세의식의 하위요인은 공정성, 윤리성, 성실성 등 3요인이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납세신뢰도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β	t	R <sup>2</sup>
세무서비스	공평성	.440	8.15***	.194
세무서비스	윤리성	.541	8.31***	.202
세무서비스	성실성	.261	4.12***	.129
투명성	공평성	-.008	-.111	.000
투명성	윤리성	.712	16.92***	.310
투명성	성실성	.301	4.30***	.272
청렴성	공평성	.562	7.65***	.277
청렴성	윤리성	.686	15.26***	.299
청렴성	성실성	.227	3.62***	.113

\*\*\*: p<.001

납세신뢰도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투명성이 공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한 8개의 변수가 양(+)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납세신뢰도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 2 “납세신뢰도는 납세의식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채택된다.

### 3)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납세의식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가설 3 납세신뢰도는 납세의식을 매개로 납세순응에 양(+)<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세우고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납세신뢰도의 하위요인은 세무서비스, 투명성, 청렴성 등 3요인이고 납세순응은 단일요인이며, 납세의식의 하위요인은 공평성, 윤리성, 성실성 등 3요인이다.

#### (1)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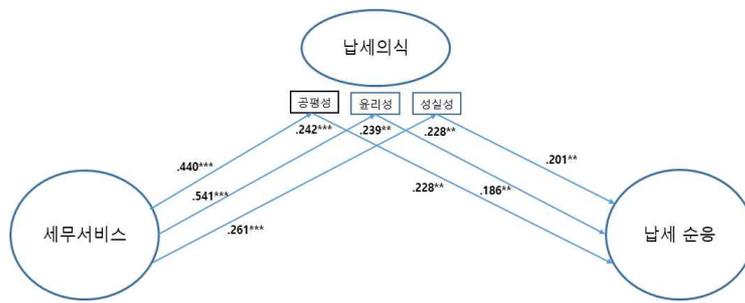
첫째,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공평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세무서비스가 매개변수인 공평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beta=.440, t=8.15(p<.001)$ ). 2단계 독립변수 세무서비스가 종속변수인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beta=.285, t=4.95(p<.001)$ ). 3단계는 세무서비스와 공평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242, t=4.42(p<.001)$ ), 공평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ta=.228, t=3.62(p<.01)$ ). 즉, 3단계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beta=.242, t=4.42(p<.001)$ )은 2단계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beta=.285, t=4.95(p<.001)$ )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공평성이 세무서비스와 납세순응 사이 매개효과를 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며, 공평성( $p<.010$ )과 세무서비스( $p<.001$ )는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공평성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윤리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세무서비스가 매개변수인 윤리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beta=.541, t=8.31(p<.001)$ ). 2단계 독립변수 세무서비스가 종속변수인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beta=.285, t=4.95(p<.001)$ ). 3단계는 세무서비스와 윤리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세무서비스는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239, t=3.38(p<.001)$ ), 윤리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ta=.186, t=2.98(p<.001)$ ). 즉, 3단계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beta=.239, t=3.38(p<.001)$ )은 2단계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beta=.285, t=4.95(p<.001)$ )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윤리성이 세무서비스와 납세순응 사이 매개효과를 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며, 윤리성( $p<.010$ )과 세무서비스( $p<.001$ )는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윤리성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성실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세무서비스가 매개변수인 성실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beta=.261, t=4.12(p<.001)$ ). 2단계 독립변수 세무서비스가 종속변수인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beta=.285, t=4.95(p<.001)$ ). 3단계는 세무서비스와 성실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세무서비스는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228, t=3.54(p<.001)$ ), 성실성은 납세순응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ta=.201, t=2.97(p<.001)$ ). 즉, 3단계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beta=.228, t=3.54(p<.001)$ )은 2단계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beta=.285, t=4.95(p<.001)$ )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성이 세무서비스와 납세순응 사이 매개효과를 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며, 성실성( $p<.010$ )과 세무서비스( $p<.001$ )는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성실성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납세신뢰도의 하위변수인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납세의식의 하위요인인 공평성, 윤리성, 성실성 등 3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3요인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림 4]는 이를 종합하여 정리한 도식이다. 따라서 납세신뢰도의 하위변수인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납세의식의 하위요인인 공평성, 윤리성, 성실성 등 3요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 :  $p<.010$ , \*\*\* :  $p<.001$

[그림 4] 세무서비스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도식: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2) 투명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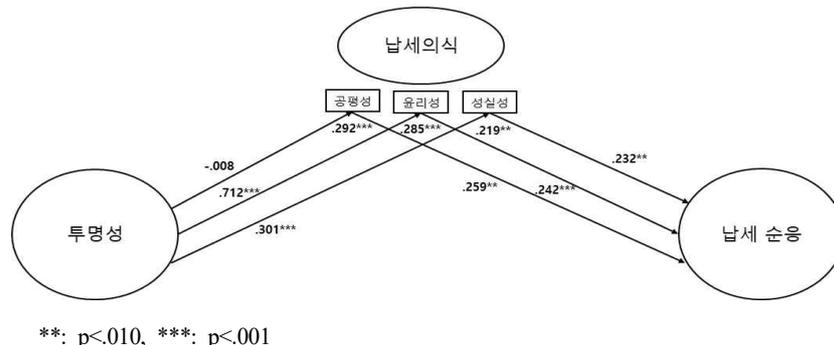
첫째, 투명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공평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계 투명성은 공평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beta=-.008, t=-.111(p>.050)$ ). 2단계 투명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351, t=5.84(p<.001)$ ). 3단계는 투명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투입하여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투명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beta=.292, t=5.13(p<.001)$ ), 공평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ta=.259, t=3.87(p<.001)$ ). 하지만, 투명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공평성의 매개효과는 1단계에서 투명성이 공평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해 공평성의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평성은 투명성과 납세순응 사이 매개하지 않는다.

둘째, 투명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윤리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계 투명성이 윤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712, t=16.92(p<.001)$ ). 2단계 투명성이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beta=.351, t=5.84(p<.001)$ ). 3단계 투명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투입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투명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 $\beta=.285, t=4.37(p<.001)$ )을 주며 윤리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ta=.242, t=3.28(p<.001)$ ). 3단계에서 투명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2

단계:  $\beta=.351$ , 3단계:  $\beta=.285$ ,  $\beta=.242$ ). 이는 윤리성이 투명성과 납세순응 사이 부분매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투명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성실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계 투명성이 성실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01$ ,  $t=4.30(p<.001)$ ). 2단계 투명성이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beta=.351$ ,  $t=5.84(p<.001)$ ). 3단계 투명성과 성실성을 동시에 투입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투명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 $\beta=.219$ ,  $t=3.51(p<.001)$ )을 주며 성실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ta=.232$ ,  $t=3.11(p<.001)$ ). 3단계에서 투명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2단계:  $\beta=.351$ , 3단계:  $\beta=.219$ ,  $\beta=.232$ ). 이는 성실성이 투명성과 납세순응 사이 부분매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납세신뢰도의 하위변수인 투명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납세의식의 하위요인인 공평성, 윤리성, 성실성 등 3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평성을 제외한 윤리성, 성실성 등 2요인에서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림 5]는 이를 종합하여 정리한 도식이다. 따라서 납세신뢰도의 하위변수인 투명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납세의식의 하위요인인 윤리성, 성실성 등 2요인의 매개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 :  $p<.010$ , \*\*\* :  $p<.001$

[그림 5] 투명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도식: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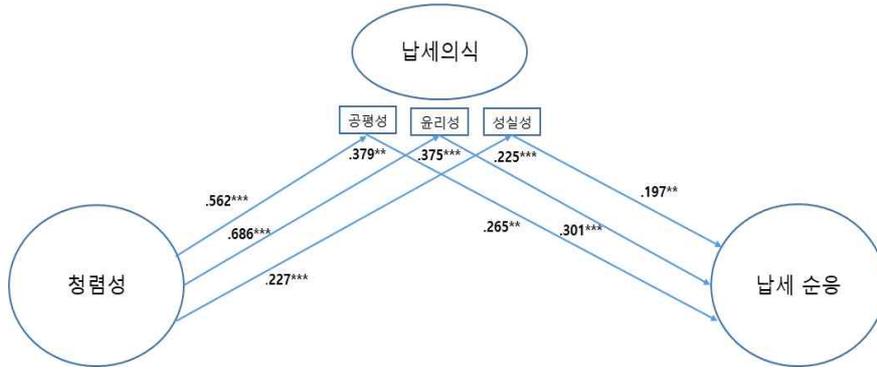
(3) 청렴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첫째, 청렴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공평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렴성이 공평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62$ ,  $t=7.65(p<.001)$ ). 2단계 청렴성이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beta=.438$ ,  $t=6.32(p<.001)$ ). 3단계 청렴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투입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청렴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 $\beta=.379$ ,  $t=3.29(p<.001)$ )을 주며 공평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ta=.265$ ,  $t=3.21(p<.001)$ ). 3단계에서 청렴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2단계:  $\beta=.438$ , 3단계:  $\beta=.379$ ,  $\beta=.265$ ). 이는 공평성이 청렴성과 납세순응 사이 부분매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청렴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윤리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청렴

성이 윤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686, t=15.26(p<.001)$ ). 2단계 청렴성이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beta=.438, t=6.32(p<.001)$ ). 3단계 청렴성과 윤리성을 동시에 투입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청렴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 $\beta=.357, t=3.52(p<.001)$ )을 주며 윤리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ta=.301, t=3.49(p<.001)$ ). 3단계에서 청렴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2단계:  $\beta=.438$ , 3단계:  $\beta=.357, \beta=.301$ ). 이는 윤리성이 청렴성과 납세순응 사이 부분매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청렴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성실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단계 청렴성이 성실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27, t=3.62(p<.001)$ ). 2단계 청렴성이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 $\beta=.438, t=6.32(p<.001)$ ). 3단계 청렴성과 성실성을 동시에 투입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청렴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 $\beta=.255, t=3.49(p<.001)$ )을 주며 성실성은 납세순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beta=.197, t=3.49(p<.001)$ ). 3단계에서 청렴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에 비해 감소하였다(2단계:  $\beta=.438$ , 3단계:  $\beta=.255, \beta=.197$ ). 이는 성실성이 청렴성과 납세순응 사이 부분매개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납세신뢰도의 하위변수인 청렴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납세의식의 하위요인인 공평성, 윤리성, 성실성 등 3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3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었다. [그림 6]은 이를 종합하여 정리한 도식이다.



\*\* : p<.010, \*\*\* : p<.001

[그림 6] 청렴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도식: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결론적으로 [그림 5] 납세신뢰도(투명성)가 납세의식(공평성)을 매개로 납세순응에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가설 3 “납세신뢰도는 납세의식을 매개로 납세순응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부분 채택된다.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표 10>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분석 종합: 납세의식의 매개효과

경로	변수	1단계 (β)	2단계 (β)	3단계 (β)	매개 효과	가설
세무서비스→ 공평성→ 납세순응	세무서비스→공평성	.440***			부분 매개	채택
	세무서비스→납세순응		.285***			
	세무서비스+공평성→ 납세순응			.242***		
세무서비스→ 윤리성→ 납세순응	세무서비스→윤리성	.541***			부분 매개	채택
	세무서비스→납세순응		.285***			
	세무서비스+윤리성→ 납세순응			.239**		
세무서비스→ 성실성→ 납세순응	세무서비스→성실성	.261***			부분 매개	채택
	세무서비스→납세순응		.285***			
	세무서비스+성실성→ 납세순응			.228**		
투명성→ 공평성→ 납세순응	투명성→공평성	-.008			완전 매개	기각
	투명성→납세순응		.351***			
	투명성+공평성→납세순응			.292***		
투명성→ 윤리성→ 납세순응	투명성→윤리성	.712***			부분 매개	채택
	투명성→납세순응		.351***			
	투명성+윤리성→납세순응			.285***		
투명성→ 성실성→ 납세순응	투명성→성실성	.301***			부분 매개	채택
	투명성→납세순응		.351***			
	투명성+성실성→납세순응			.219**		
청렴성→ 공평성→ 납세순응	청렴성→공평성	.562***			부분 매개	채택
	청렴성→납세순응		.438***			
	청렴성+공평성→납세순응			.379**		
청렴성→ 윤리성→ 납세순응	청렴성→윤리성	.686***			부분 매개	채택
	청렴성→납세순응		.438***			
	청렴성+윤리성→납세순응			.357***		
청렴성→ 성실성→ 납세순응	청렴성→성실성	.227***			부분 매개	채택
	청렴성→납세순응		.438***			
	청렴성+성실성→납세순응			.255***		

\*\* : p<.010, \*\*\* : p<.001

## VI. 결론

본 연구는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납세의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 세무대리인, 그리고 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표본 278부를 가지고 세무당국과 납세자 사이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순응을 촉진하는 납세신뢰도를 분석하고 납세신뢰도가 매개효과를 통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가 납세신뢰도와 납세순응 간의 매개 장치로서 납세의식 즉, 공정성, 성실성 그리고 윤리성의 역할을 조사한 결과, 공정성과 윤리성은 납세신뢰도와 납세순응 간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실성은 기각되었다. 이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촉진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윤리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드러진 신념 즉, 개인과 세무당국 간의 신뢰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에 대한 행동신념인 태도를 증가시키고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촉진한다는 주장(Ajzen, 1991), 기관 품질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인식이 납세의식과 납세순응에 중대한 역할을 미친다고 주장(Torgler and Schneider, 2009), 그리고 정부지출의 효과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지각된 혜택의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의식의 수준은 높아진다는 주장(Sipos, 2015) 등과 일치한다.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납세의식 즉, 공정성과 윤리성이 증가하게 되고 순차적으로 납세순응도 더욱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납세신뢰도가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납세의식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조세 정책수립에 있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세순응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론 및 실무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모든 변수를 응답자 한 사람이 측정하였다. 이로 인해 동일방법 편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납세순응을 결정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순응을 증가시키는데 있어 세무당국에 대한 납세신뢰도의 중요성을 실증하는데 있기 때문에 미래연구는 자발적 납세순응을 촉진하는 다양한 요인 및 상황요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사단법인 가족기업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강무성·윤병섭. 2022. “가족기업의 사전증여 규제완화 제언”. 『지역산업연구』, 제45권 제2호 : 275-314.
- 강민조. 2017.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순응 의도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세무학연구』, 제34권 제3호 : 309-331.
- 구광희. 2010. 「세무조사와 납세의식이 납세자 신뢰도 및 납세순응 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관형·심태섭. 2019. “납세자의 개인납세윤리, 사회납세윤리, 사회정체성 및 세무조사가능성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3호 : 9-42. DOI: 10.35850 /KJTA.20.3.01
- 김정호·노현섭. 2012.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2호 : 1443-1461. UCI: G704-001438.2012.25.2.011
- 노정관·박성욱. 2017. “세무대리인의 윤리적 성향과 윤리적 평가가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회계저널』, 제26권 제1호 : 165-196. DOI: 10.24056/KAJ.2016.08.001
- 민기홍·서희열·배수진. 2011. “납세의식수준과 세무행정에 대한 만족도 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9권 제3호 : 29-50. UCI: G704-001013.2011.29.3.011
- 박병목. 2000. 「부가가치세제의 결함과 납세도의 의식이 세부담 공평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박주철. 2008. “과세공평성 지각이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9권 제1호 : 125-144. UCI: G704-001563.2008.9.1.007
- 이영환. 2009. 「윤리적 신념과 윤리적 평가 및 적발위험 증가가 세무대리인의 납세순응행동 권고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임영규·김진찬. 2014. “납세자 신뢰도가 납세의식 및 납세순응행위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연구』, 제22권 제2호 : 49-71. DOI: 10.22921/jrs.2014.22.2.003 UCI: G704-001492.2014.22.2.004
- 전병목·박명호. 2007.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서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정도효. 2019. “조세 순응이 납세태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 43-72. DOI: 10.17327/ippa.2019.33.3.002
- 정재율. 2010. “조세회피기회, 윤리환경, 납세도의회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1호 : 137-166. UCI: G704-001563.2010.11.1.012
- 정혜윤·윤병섭. 2022.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담은 상속세 개선 방안”. 『지역산업연구』, 제45권 제1호 : 57-92. DOI: 10.33932/rir.45.1.3
- 정희상. 2009. 「부당신고 가산세율의 인상이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학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 최영근. 1996. “납세의무자의 세법준수성 연구-이론, 문제점 및 전개방향”. 『세무학연구』, 제 8권 : 153-176. UCI: I410-ECN-0102-2009-320-004340339
- 허진영·최현혁. 2008. “계획행동 이론을 적용한 모험스포츠 참여의도와 지속행동과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7권 제2호 : 355-367. UCI: G704-001369.2008.17.2.001
- 현진권. 2005. “한국 납세자의 납세순응행위 분석”. 『한국경제의분석』, 제11권 제3호 : 135-175. UCI: G704-000474.2005.11.3.002
- 황광석·이운식. 2019. “주류 판매업자의 일반적 특성, 윤리의식, 세제인지도가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제도개선 및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세무회계연구』, 제59호 : 161-190. DOI: 10.35349/tar.2019..59.008
- 황재민·이창대. 2016. “전자세금계산서 도입요인이 이용자 만족도와 납세순응도에 미치는 영향”. 『전문경영인연구』, 제19권 제2호 : 267-288.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 179-211. DOI: 10.1016/0749-5978(91)90020- T
- Ajzen, I. and M. Fishbein.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Allingham, M. G. and A. Sandmo. 1972. “Income Tax Evasion: A Theoretical Analysi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4) : 323-338. DOI: 10.1016/0047- 2727(72)90010-2
- Ariel, B.. 2012. “Deterrence and Moral Persuasion Effects on Corporate Tax Compliance: Findings from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Criminology*, 50(1) : 27-69. DOI: 10.1111/j.1745-9125.2011.00256.x
- Asrinanda, Y. D.. 2018. “The Effect of Tax Knowledge, Self Assessment System, and Tax Awareness on Taxpayer Compli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8(10) : 539-550. DOI: 10.6007/ IJARBS/v8-i10/4762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 191-215. DOI: 10.1037/0033-295X.84.2.191
- Baron, R. M. and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 Belak, J. and L. Hauptman. 2011. “Integral Management Approach: Business Ethics and Tax Accounting as Important Enterprise Success Factors”.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5(35) : 13449-13509. DOI: 10.5897/AJBMX 11.027
- Cyan, M. R., A. M. Koumpias and J. Martinez-Vazquez. 2016. “The Determinants of Tax Morale in Pakistan”. *Journal of Asian Economics*, 47 : 23-34. DOI: 10.1016/j.asieco.2016.09.002

- Faizal, S. M., M. R. Palil, R. Maelah and R. Ramli. 2017. "Perception on Justice, Trust and Tax Compliance Behavior in Malaysia". *Kasetsart Journal of Social Sciences*, 38(3) : 226-232. DOI: 10.1016/j.kjss.2016.10.003
- Feld, L. P. and B. S. Frey. 2007. "Tax Compliance as the Result of a Psychological Tax Contract: The Role of Incentives and Responsive Regulation". *Law and Policy*, 29(1) : 102-120. DOI: 10.1111/j.1467-9930.2007.00248.x
- Gangl, K., E. B. Hofmann, and E. Kirchler. 2012. "Tax Authorities' Interaction with Taxpayers: Compliance by Power and Trust". *WU International Taxation Research Paper Series No. 2012-06*. DOI: 10.2139/ssrn.2174917
- Gangl, K., B. Torgler, E. Kirchler and E. Hofmann. 2014. "Effects of Supervision on Tax Compliance: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 Austria". *Economics Letters*, 123(3) : 378-382. DOI: 10.1016/j.econlet.2014.03.027
- Hartner, M., S. Rechberger, E. Kirchler and A. Schabmann. 2008. "Procedural Fairness and Tax Compliance".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38(1) : 137-152. DOI:10.1016/S0313-5926(08)50010-5
- Hasseldine, D. J. and K. J. Bebbington. 1991. "Blending Economic Deterrence and Fiscal Psychology Models in the Design of Responses to Tax Evasion: The New Zealand Experienc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2(2), 299-324. DOI:10.1016/0167-4870(91)90018-O
- Hauptman, L., V. Bobek, V. Čančer, I. Perko and R. Korez-Vide. 2011. "Policy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Small-and Medium-Sized Enterprises: Evidence from Slovenia". *Transformations in Business and Economics* 10(3) : 138-154.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272150897>
- Hauptman, L., M. Horvat and R. Korez-Vide. 2014. "Improving Tax Administration's Services as a Factor of Tax Compliance: The Case of Tax Audit". *Lex Localis-Journal of Local Self-Government*, 12(3) : 481-501. DOI: 10.4335/12.3. 481-501(2014)
- Horodnic, I. A.. 2018. "Tax Morale and Institutional Theory: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38(9) : 868-886. DOI: 10.1108/IJSSP-03-2018-0039
- Jensen, J. and F. Wöhlbier. 2012. "Improving Tax Governance in EU Member States: Criteria for Successful Policies". *European Economy*, Vol.114.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Brussels Belgium
- Jimenez, P. and G. S. Iyer. 2016. "Tax Compliance in a Social Setting: The Influence of Social Norms, Trust in Government, and Perceived Fairness on Taxpayer Compliance". *Advances in Accounting*, 34 : 17-26. DOI: 10.1016/j.adiac.2016.07. 001

- Kamil, N. I. 2015. "The Effect of Taxpayer Awareness, Knowledge, Tax Penalties and Tax Authorities Services on the Tax Compliance: (Survey on the Individual Taxpayer at Jabodetabek and Bandung), *Research Journal of Finance and Accounting*, 6(2) : 104-111. ISSN 2222-1697
- Kaplan, S. E. and P. M. J. Reckers. 1985. "A Study of Tax Evasion Judgments". *National Tax Journal*, 38(1) : 97-102. DOI: 10.1086/NTJ41791998
- Kirchler, E., E. Hoelzl and I. Wahl. 2008. "Enforced versus Voluntary Tax Compliance: The "Slippery Slope" Framework".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29(2) : 210-225. DOI:10.1016/j.joep.2007.05.004
- Leonardo, G.. 2011. *Politics and Tax Morale. The Role of Trust, Values, and Beliefs, in Shaping Individual Attitudes towards Tax Compliance*. Doctoral Dissertation,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RL <http://hdl.handle.net/1853/43733>
- Likert, R.. 1932. "A Technique for the Measurement of Attitudes", *Archives of Psychology* 140 : 5-55.
- Mickiewicz, T., A. Rebmann and A. Sauka. 2019. "To Pay or Not to Pay? Business Owners' Tax Morale: Testing a Neo-Institutional Framework in a Transition Environment". *Journal of Business Ethics*, 157 : 75-93. DOI: 10.1007/s10551-017-3623-2
- OECD. 2010. "Understanding and Influencing Taxpayers' Compliance Behaviour". *Information Note*. Forum on Tax Administration: Small/Medium Enterprise(SME) Compliance Subgroup.
- Parent, M., Vandebeek, C. A. and A. C. Gemino. 2005. "Building Citizen Trust Through E-government".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22(4) : 720-736. DOI:10.1016/j.giq.2005.10.001
- Porcano, T. M.. 1984. "Distributive Justice and Tax Policy". *Accounting Review*, 59(4) : 619-636. <https://www.jstor.org/stable/247323>
- Qutaishat, F. T.. 2012. "Users' Perceptions Towards Website Quality and Its Effect on Intention to Use E-government Services in Jordan". *International Business Research*, 6(1) : 97-105. DOI: 10.5539/ibr.v6n1p97
- Richardson, G.. 2006. "Determinants of Tax Evasion: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15(2), 150-169. DOI: 10.1016/j.intaccaudtax.2006.08.005
- Russell, B.. 2010. "Revenue Administration: Developing a Taxpayer Compliance Program". *Technical Notes and Manuals 10/17*. International Monetary Fund Fiscal Affairs Department.
- Sapiei, N. S., J. Kasipillai and U. C. Eze. 2014. "Determinants of Tax Compliance Behaviour of Corporate Taxpayers in Malaysia". *eJournal of Tax Research*, 12(2) : 383-409.

- Siglé, M., S. Goslinga, R. Speklé, L. van der Hel and R. Veldhuizen. 2018. “Corporate Tax Compliance: Is a Change Towards Trust-Based Tax Strategies Justified?”. *Journal of International Accounting, Auditing and Taxation*, 32, 3-16. DOI:10.1016/j.intaccudtax.2018.06.003
- Sipos, A.. 2015. “Determining Factors of Tax-Morale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Tax Revenues of Local Self-Governments”. *Procedia Economics and Finance*, 30 : 758-767. DOI: 10.1016/S2212-5671(15)01325-8
- Smith, K. W.. 1990. “Integrating Three Perspectives on Noncompliance: A Sequential Decision Model”.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7(3) : 350-369. DOI: 10.1177/0093854890017003008
- Song, Y. D. and T. E. Yarbrough. 1978. “Tax Ethics and Taxpayer Attitudes: A Surve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8(5) : 442-452. DOI: 10.2307/975503
- Torgler, B. and F. Schneider. 2009. “The Impact of Tax Morale and Institutional Quality on the Shadow Economy”.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30(2) : 228-245. DOI: 10.1016/j.joep.2008.08.004
- Tyler, T. R.. 2006.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gitimacy and Legitima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 375-400. DOI: 10.1146/annurev.psych.57. 102904.190038
- Veeramootoo, N., R. Nunkoo and Y. K. Dwivedi. 2018. “What Determines Success of an E-Government Service? Validation of an Integrative Model of E-Filing Continuance Usage”. *Government Information Quarterly*, 35(2) : 161-174. DOI:10.1016/j.giq.2018.03.004
- Vogel, J.. 1974. “Taxation and Public Opinion in Sweden: An Interpretation of Recent Survey Data”. *National Tax Journal*, 27(4):499-513. DOI: 10.1086/NTJ41861983
- Weigel, R. H., D. J. Hessing and H. Elffers. 1987. “Tax Evasion Research: A Critical Appraisal and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8(2) : 215-235. DOI: 10.1016/0167-4870(87)90021-3
- Wenzel, M. and N. Taylor. 2003. “Toward Evidence-Based Tax Administration”.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38(3) : 413-432. DOI: 10.1002/j.1839-4655. 2003.tb01153.x

## The Mediating Effect of Tax Consciousness on Tax Compliance of Tax Payment Reliability

Nam, Woo Jin\* · Kim, Chul Hun\*

— <Abstract> —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tax consciousness on tax compliance by tax payment reli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the tax reliability that promotes voluntary tax compliance of taxpayers is analyzed, and the effect of tax reliability on tax compliance through a mediating effect is analyzed.

**[Design/Methodology]**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corporate businesses, individual businesses, earned income earners, tax agents, and tax officials. This study conducts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22 statistical program.

**[Findings]** This study analyzed the parameters between tax payment reliability and tax compliance, that is, fairness, sincerity, and ethics. As a result of the study, fairness and ethics partially mediated between tax reliability and tax compliance, but sincerity was rejected. It is judg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trust in the tax authorities, the higher the tax consciousness, that is, fairness and ethics, and the higher the tax compliance sequentially.

**[Research implications]** This study introduced tax consciousness as a parameter to analyze the effect of tax reliability on tax compliance, which was not covered in previous stud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have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level of voluntary tax compliance of taxpayers and establishing tax policies related to improving the level of public tax awareness.

<Key Words> Tax Confidence, Tax Consciousness, Compliance with Tax Payment, Slippery Slope Framework(SSF), Theory of Planned Behavior

---

\* Ph.D., CEO, Semu Broadcasting Co., Ltd. (nwj517@naver.com, First Author)

\*\* Certified Tax Accountant, Yuanta Securities Korea Co., Ltd. (taxkch@naver.com, Corresponding Author)